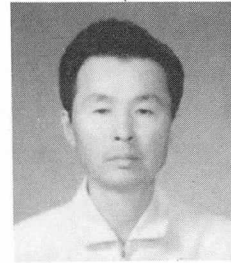


# 돼지고기 수출 원료돈을 생산하면서



최 채 우  
(본회 목포지부장)



정육 생산량은 8kg에서 15kg까지 무려 7kg 차이를 두고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속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돈산학협동연구회를 통하여 일본에서 요구하는 돈육생산요령을 교육하고, 또한 축산시험장에서는 현재 규격돈 1두에서 수출원료육 8kg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15kg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그 내용을 양돈농가에 지도 보급해 주길 바란다.

또한 냉장육으로 수출할 경우 냉동육에 비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니, 대일 수출에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냉장육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도축시설과 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료부가세 환급문제로 기업양돈가 즉, 법인은 세무장부를 통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만, 전업양돈농가는 세무장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업양돈농가들도 축산당국의 확인 즉, 수출원료돈 자가사육증명 등 여러가지 확인에 의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 해 주길 바란다.

셋째로, 양돈농가와 육가공회사간에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육가공협회와 양돈협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돼지고기 수출확대와 양돈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바란다. **필자**

지난 7월 21일에 무안축협 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대조성 교육을 전남도청 농산국 정병섭 국장, 도청 축정과 허귀완 과장, 무안군청 축산과 전양호 과장, 도·군 축산행정 담당관, 군산검역소 소장, 농촌지도소 축산담당관, 축협 전남도지회 판매담당관, 목포 한냉육가공 회사, 양돈협회 회원, 시·군 양돈협회 지부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했다.

축산행정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양돈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전동용 양돈협회 회장님 그리고 축산업에 뜻을 같이 하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사의를 표한다.

나는 목포 한냉육가공회사의 지도와 협조 아래 수출규격돈을 납품하면서 문제점을 알게 되어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며 뜻을 모아 많은 잠재력이 있는 전업양돈농가도 수출에 참여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규격돈 1두에서 실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